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성격에 따른 헤어스타일 형태에 관한 연구 -영동지역 여대생을 중심으로-

임희정* · 이희현**

*영동대학 강사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
교육학과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1. 성격이론
 - 2. 아이젠크(Eysenck)의 성격차원 이론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 3. 조사 도구의 구성 및 방법
 - 4. 자료의 분석 방법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 2. 개인적 변인과 헤어스타일
 - 3. 성격특성 변인과 헤어스타일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ct

I. 서론

헤어스타일은 현대의 다변화하는 각 개인의 감각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유행과 발맞추어 개개인의 개성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의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방법으로 의복과 헤어스타일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헤어스타일은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기성복이 일반화되면서, 의복보다는 변화가 쉬우며, 다양한 자기 연출이 가능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독창성이 중요시되면서 의상에서도 주된 라인이 없이 각자의 개성 표현에 맞게 선택하듯이 헤어스타일도 의복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타일이 선택되어지고 있다. (김희숙, 1993)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진행되는 인상 형성 연구에서 내현 성격이론을 기초로 착용자의 의복을 통해 성격을 추론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들은 의복 행동과 성격과의 관계에 대한 간접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착용자의 의복으로부터 어떤 성격 특성이 추론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의복 행동이 착용자의 내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강혜원, 1996)

착용자의 의복이 지시하는 내용 중에는 의복의 형태 및 재질, 색상 뿐 아니라 장신구와 머리 모양까지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헤어스타일만을 다룬 선행연구는 미미하지만 헤어스타일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 연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 변인 및 성격특성변인과 헤어스타일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과 헤어스타일의 관심에 대한 전반적인 상관성을 밝혀냄으로서 성격에 따라 선호되는 헤어스타일에 기본 모형을 제시하고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추측함으로써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자는 물론 의상 전반을 다루는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는 여대생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과 개인의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성격에 따라 선호되는 헤어스타일의 기본 모형을 제시하고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추측함으로써 헤어스타일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헤어스타일 변인(형태, 관심, 선택조건)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둘째, 대학생의 성격 특성 변인과 헤어스타일변인(형태, 관심, 선택조건)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 1) 조사대상자를 영동지역에 거주하는 여대생으로 제안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에게 확대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 2) 조사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 자료를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표준화된 것은 아니다.
- 3) 성격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을 비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성격

성격(Personality)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뜻은 정의하는 사람의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하며, 그 중의 몇 가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격을 정의하는 데 많이 인용되고 있는 알포트(Allport)의 정의는 '성격이란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정신·물리적 체계로서 개인 안에 있는 역동적 조직이다'. (Hjelle와 Ziegler, 1981)라고 하고 있다. 즉 성격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며 사람의 내부에서 활동을 지시하고 이끌어 가는 "독특한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

레저너스(Lazarus)와 모네이트(Monat, 1979)는 '성격이란 본질적으로 안정된 것이며,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짓고 개인의 인생경험을 조직하는 심리적 구조'라고 하였다. 이것은 성격을 심리적인 반응을 관찰, 추리하고 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및 기초 체계로서 설명하는 것이다.

한편 웨이튼(Weiten, 1986)은 '성격은 개인의 일관된 행동경향을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이용되는 하나의 가정된 개념'이라고 하였다. (강혜원, 1996)

또한 성격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특징 지우는 비교적 일관성 있고 독특한 행동양식과 사고양식이며, 성격은 관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되어진 행동이나 사고들을 토대로 하여 추리되어진 경향성 또는 양식을 뜻한다. (이수원외, 1992)

2. 아이젠크(Eysenck)의 성격차원 이론

아이젠크(1952)는 주요 성격차원의 하나인 정서성 차원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목적으로 총 40문항의 검사를 연구 개발하고 그것을 「모슬리 의학적 설문지」라고 불렀다. 아이젠크(1959)는 MMQ로 측정되는 정서성 차원 외에 다른 성격차원인 외향성-내향성 차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연구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질문지형 모슬리 성격검사」(Maudsley Personality Inventory: MPI)이다. 뒤를 이어 그는 부인과 공동으로 (Eysenck & Eysenck, 1964) 지금까지 연구 개발한 검사의 내용을 보다 쉽게 개편하는 한편 질문지형 모슬리 성격검사에 의해서 측정되는 두 개의 주요 성격차원인 정서성 차원과 외향성-내향성 차원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성격차원인 허위성 차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질문지형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Inventory: EPI)이다.

이와 같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젠크 부부(Eysenck & Eysenck, 1975)는 정서성 차원, 외향성-내향성 차원 및 허위성 차원 이외에도 자신이 평소부터 관심 있게 여겨 왔던 또 다른 주요 성격차원인 강인성 혹은 정신병적 경향성 차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연구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이다. 이 검사는 프랑스, 일본, 홍콩, 그리스, 뉴질랜드, 스페인, 헝가리, 나이지리아, 유고슬라비아, 브라질 등 25개국에서 표준화

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아이젠크는 갈레너스-윈드(Galenus-Wundt)의 성격유형론을 기반으로 하여 정서적차원(emotional dimension) 혹은 신경증적 경향성 차원(neuroticism dimension)의 이론, 외-내향성차원(extraversion-introversion)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그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를 연구 제작하였다.

국내에서의 『아이젠크 성격검사』를 사용한 연구로는 송혜수(1994)의 불안성격에 따른 각성의 변화:가성감소체통의 기능을 중심으로와 유희정(1990)의 관상동맥성 심장병환자의 심리적 특성-정신병적 경향성과 반응성등 다수가 있다.(고려대학교부설행동과학연구소편, 심리적도핸드북, 2000)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형태와 관심 및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선호되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기본 모형을 제시하고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추측함으로써 헤어스타일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헤어스타일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둘째, 대학생의 성격 특성 변인과 헤어스타일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강원도 영동지역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1년 3월 30일부터 2001년 4월 6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부하였으나 307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기제가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299부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3. 조사 도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김양휴(1996)과 이지희(1993)의 설문지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가정학자 몇 분에게 설문지를 보여드려 문항에 무리가 없는지 타당도를 검증한 후 작성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인 변인

조사 대상자의 나이, 주거형태, 생활수준, 한 달 사용하는 용돈, 사용하는 용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령은 19~21세, 22세~25세, 2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주거형태는 대상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사는지 떨어져서 사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여 헤어스타일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다.

생활수준의 경우 上, 中, 下로 구분하였다.

한 달 사용하는 용돈과 용돈의 출처와 헤어스타일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2) 성격특성변인

조사 대상자의 성격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 검사지』 <Eysenck Personality Scale- Adult- : (Eysenck & Eysenck, 1991)를 우리 나라 표집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크게 I·II·III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그중 제 II부와 III부를 검사용으로 사용하였다. 제 II부는 EPQ로 (1) 정신병적 경향성 (2) 외향성-내향성 (3) 신경증적 경향성 (4) 허위성의 네 개의 척도로 되어있으며 48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성격의 특성에 따라 각각 12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II부는 충동성 검사(Impulsiveness Questionnaire : IVE, Eysenck & Eysenck, 1978; Eysenck et al., 1985)로서 (1) 충동성 (2) 모험성 (3) 감정이입의 세 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성격특성에 따라 (1) 충동성은 14문항 (2) 모험성은 14문항 (3) 감정이입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헤어스타일의 형태

헤어스타일의 형태에 대한 설문지는 김양휴(1996)의 설문지를 참고로 해서 작성하였다.

현재 헤어스타일의 길이로 짧은 커트형, 단발형, 어깨선 길이, 그 이상의 긴 머리의 형태로 분류하여 헤어스타일의 전체적인 형태를 조사하였다.

헤어스타일 형태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퍼머넌트, 염·탈색의 유무와 염·탈색을 실시한 경우 선호한 색상에 대해서 조사하여, 다양한 색상이 많이 있는 헤어컬러 시장에서 선호색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자신이 하고 있는 현재의 헤어스타일의 전체적인 형태를 새롭게 바꿀 경우 선택하는 헤어스타일의 객관적인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평범한 형태, 유행하는 형태, 개성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각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개인적인 변인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변인은 <표 1>와 같다

조사 대상자는 전체 299명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19~33세로 다양했으며 19~21세 까지, 22~25세 까지, 2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19~21세까지는 43.5%(130명), 22~25세까지는 49.5%(48명), 25세 이상은 6.8%(21명)이었다.

주거형태는 부모님과과의 거주 여부에 따라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는 35.5%(106명)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5%(193명)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은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上·中·下로 나누었는데 上인 조사 대상자는 5.7%(17명), 中은 69.9%(209명)이며, 下는 22.4%(73명)로 中의 조사대상자가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사용하는 용돈은 3만원에서 55만원까지 다양하였는데 한달 용돈이 55만원~30만원까지 사용하는 경우 17.6%(53명)이었고, 29~25만원은 16.1%(48명)이며, 24~20만원은 26.1%(78명), 19~14만원은 10.1%(30명), 15~3만원은 30.1%(90명)이었다.

용돈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11%(33명)가 스스로 마련한다고 대답하였으며, 61.9%(185명)가 부모님께 타서 쓴다고 대답했으며, 27.1%(81명)가 스스로 마련한 돈과 부모님이 주신 돈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299

구 분		빈 도	백분율(%)
나 이	19~21세	43.5	130
	22~25세	49.5	148
	25세 이상	6.8	21
개 인 적	주거형태 (부모님과) 같이 산다	35.5	106
	떨어져서 산다	64.5	193
변 인	생활수준 上	5.7	17
	中	69.9	209
	下	2.4	73
한 달 사용 용돈	55~30만원	17.6	53
	30~25만원	16.1	48
	25~20만원	26.1	78
	20~15만원	10.1	30
	15~3만원	30.1	90
	용돈 마련	스스로	11.0
부모님		61.9	185
스스로/부모님		27.1	81

2) 성격특성변인

조사 대상자의 성격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정신병적 경향성과 허위성은 전체 대상자에서 각각 1.7%(5명)과 4.3%(13명)이어서 상관관계로 분석하기에는 사례가 너무 적어 분석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개의 척도를 제외한 5개의 척도를 조사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격특성변인은 <표 2>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격특성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빈도를 살펴보면 외향성-내향성의 성격은 54.8%(164명), 신경증적 경향성은 36.5%(109명), 충동성 14.7%(44명), 모험성은 28.1%(84명), 감정이입은 43.8%(131명)로 나타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성격특성

전체=273/259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격 특 성	외향성-내향성 (Extroversi- Introversion)	E	164	54.8
	신경증적 경향성 (Neuroticism)	N	109	36.5
	충동성(Impulsiveness)	Imp	44	14.7
	모험성(Venturesomeness)	Ven	84	28.1
	감정이입(Empathy)	Emp	131	43.8

-성격검사의 경우 오기재자 때문에 개인변인과의 합계가 다름

그러나 이 심리 결과는 미리 정해 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성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N(정신병적 경향)이 다른 점수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을 경우 이것만 보고 그 사람을 극히 불안이 심한 신경증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여러 개의 성격척도로 종합적으로 해석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척도를 종합하여 성격 특성을 나타내면 성격특성이 너무 많아져서, 빈도가 높은 성격특성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3) 헤어스타일 변인

헤어스타일의 변인은 <표 3>와 같다.

<표 3> 헤어스타일의 변인

전체=299

헤어스타일 변인	내 용		빈 도	백분율(%)
헤어스타일 형태	헤어스타일 길이	짧은커트형	34	11.4
		단발형	45	15.1
		어깨길이	115	38.5
		그 이상 긴머리	105	35.1
	퍼머넌트 유무	했다	103	34.4
	안했다	196	36.6	
염·탈색 유무	했다	246	82.3	
	안했다	52	17.4	
염·탈색 선호색상	옐로우·골드	75	29.8	
	브라운류	93	36.9	
	레드·오렌지·와인	43	17.1	
	화이트·실키·블루·블랙	41	16.3	
바꾸고 싶은 형태	평범한 헤어스타일	40	13.4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84	28.1	
	개성적인 헤어스타일	163	54.4	

(1) 헤어스타일의 형태

조사대상자의 「헤어스타일은 길이」는 짧은 커트형이 11.4%(34명), 단발형 15.1%(45명), 어깨선 길이 38.5%(115명), 그 이상의 긴 머리 35.1%(105명)였다. 「퍼머넌트 유무」는 퍼머넌트를 했다는 34.4%(103명), 안했다는 65.6%(196명)으로 나타났다. 「염·탈색의 유무」는 82.3%(246명)이 했다하였고, 17.4%(52명)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염·탈색의 선호색은 옐로우·골드가 25.1%(75명), 브라운류 31.1%(93명), 레드·오렌지·와인류 14.4%(43명), 화이트·실키·블루·블랙류는 13.7%(41명)으로 나타났다.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의 형태」는 평범한 헤어스타일 13.4%(40명),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28.1%(84명), 개성적인 헤어스타일 54.5%(163명)로 나타났다.

2. 개인적 변인·성격특성변인과 헤어스타일 변인과의 관계

개인의 변인에 따라 헤어스타일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개인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길이, 퍼머넌트의 유무, 염·탈색의 유무 및 선호색상,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의 형태에 대한 관계를 밝혔다.

1) 개인적 변인과 헤어스타일의 형태

(1) 헤어스타일의 길이

헤어스타일의 길이는 연령과 헤어스타일 형태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다른 변인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개인적 변인과 헤어스타일의 길이는 <표 4>과 같다.

연령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길이는 19~21세까지의 연령 48.5%(63명)가 어깨선 길이, 22~25세 38.5%(57명)가 어깨선 이상의 긴 머리, 25세 이상 33.3%(7명)가 짧은 컷형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즉, 25세 이하는 어깨선 또는 그 이상의 긴머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 이상은 긴 머리보다는 짧은 컷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거형태에 따라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조사대상자 중 42.5%(45명),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는 조사대상자 36.3%(70명)가 어깨선 길이의 헤어스타일의 길이를 선택하였다.

생활수준은 중인 조사대상자 39.7%(83명), 하인 조사대상자 37.0%(27명)가 어깨선 길이의 헤어스타일, 상인 조사대상자는 58.8%(10명)가 어깨선 이상의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에 따라서 55~30만원을 쓰는 조사대상자 39.6%(21명), 30~25만원 41.0%(32명), 25~20만원 50.0%(15명), 15~3만원 33.3%(30명)가 어깨선 길이의 머리형태를, 20~15만원 45.8%(22명)가 어깨선 이상의 머리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 출처에서는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는 조사대상자 30.3%(10명),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조사대상자 40.0%(74명), 부모님이 주신 용돈과 스스로 마련해서 사용하는 조사대상자 38.3%(31명)가 모두 어깨선 길이의 머리길이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개인적 변인과 헤어스타일의 길이

전체=299

개인변인		헤어스타일 형태의 길이								계 (빈도/백분율)	χ ² 및 유의도
		짧은커트형		단발형		어깨길이		그이상의 긴머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19세-20세	11	8.5	14	10.8	63	48.5	42	32.3	130	.002**
	21세-25세	16	10.8	23	18.9	47	31.8	57	38.5	148	
	25세 이상	7	33.3	3	14.3	5	23.8	6	28.6	21	
주거 형태	(부모님과 같이산다	13	12.3	13	12.3	45	42.5	35	33.0	106	.605
	떨어져서 산다	21	10.9	32	16.6	70	36.3	70	36.3	193	
생활 수준	上	-	-	2	11.8	5	29.4	10	58.8	17	.264
	中	22	10.5	31	14.8	83	39.7	73	34.9	209	
	下	21	16.4	12	16.4	27	37.0	22	30.1	73	
용돈	55~30만원	3	5.7	11	20.8	21	39.6	18	34.0	53	.104
	30~25만원	-	-	9	18.8	17	35.4	22	45.8	48	
	25~20만원	11	14.1	8	10.3	32	41.0	27	34.6	78	
	20~15만원	4	13.3	4	13.3	15	50.0	7	23.3	30	
	15~3만원	16	17.8	13	14.4	30	33.3	31	34.4	90	
용돈 출처	스스로 마련	6	18.2	5	15.2	10	30.3	12	38.4	38	.578
	부모님	16	8.6	27	14.6	74	40.0	68	36.8	185	
	스스로 마련/ 부모님	12	14.8	13	16.0	31	38.3	25	30.9	81	

*p<.05 **p<.01 ***p<.001

(2) 퍼머넌트의 유무

개인적 변인 중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고 다른 변인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인적 변인과 퍼머넌트의 유무는 〈표 5〉와 같다

〈표 5〉 개인적 변인과 퍼머넌트의 유무

전체=299

종속변인 개인변인		퍼머넌트 웨이브의 유무					x ² 및 유의도
		했다		안했다		계 (빈도/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19세-20세	48	36.9	82	63.1	130(100%)	.029*
	21세-25세	43	29.1	105	70.9	148(100%)	
	25세 이상	12	57.1	9	42.9	9 (100%)	
주거 형태	(부모님과) 같이산다	33	31.1	73	68.9	106(100%)	.222
	떨어져서 산다	70	36.3	123	63.7	193(100%)	
생활 수준	上	8	47.1	9	52.9	17 (100%)	.478
	中	72	34.4	137	65.6	209(100%)	
	下	23	31.5	50	68.5	73 (100%)	
용돈	55~30만원	11	20.6	42	79.2	53(100%)	.115
	30~25만원	18	37.5	30	62.5	48(100%)	
	25~20만원	29	37.2	49	62.8	78(100%)	
	20~15만원	8	26.7	22	73.3	30(100%)	
	15~3만원	37	41.1	53	38.9	90(100%)	
용돈 출처	스스로 마련	16	48.5	17	51.5	33(100%)	.182
	부모님	62	33.5	123	66.5	185(100%)	
	스스로 마련/ 부모님	25	30.9	56	69.1	81 (100%)	

*p<.05 **p<.01 ***p<.001

연령에 따른 퍼머넌트의 여부는 19~21세까지의 연령이 63.1%(82명), B집단 70.9%(105명), 퍼머넌트를 안했다고 대답했으며, 25세 이상인 C집단 57.1%(12명)이 퍼머넌트를 했다고 대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즉, 25세 이하는 자연 모발을 선호하는데 비해 25세 이상의 연령층은 퍼머넌트를 하여 자연모발 상태보다는 퍼머넌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조사 대상자 68.9%(73명),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는 69.7%(123명)가 퍼머넌트를 안했다고 대답하였다.

생활수준에 따른 퍼머넌트 여부는 조사대상자 중 상위인 52.9%(9명), 중류, 하류 68.5%(50명)가 퍼머넌트 웨이브를 하지 않았으며 31.5%(23명)이 퍼머넌트 웨이브를 안했다고 대답하였다.

용돈에 따라 55~30만원을 사용하는 79.2%(42명), 30~25만원을 사용하는 62.5%(30명), 25~20만원 62.8%(49명), 20~15만원 집단 73.3%(22명), 15~3만원 58.9%(53명)가 퍼머넌트를 하지 않았다.

용돈 출처에 따라서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는 조사대상자 51.5%(17명),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조사대상자 66.5%(123명), 부모님이 주신 용돈과 스스로 마련해서 사용하는 조사대상자 69.1%(56명)가 퍼머넌트를 하지 않았다. 즉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변인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3) 염색 탈색의 유무

개인적 변인과 염·탈색의 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개인적변인과 염·탈색의 여부는 <표 6>과 같다.

연령에 따른 염·탈색의 여부는 19~21세까지 73.8%(101명), 22~25세 까지 83.8%(124명), 25세 이상 100.0%(21명)가 염·탈색을 했다고 대답하였다.

주거형태에 따른 염·탈색의 여부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조사대상자 80.0%(84명),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은 대상자 83.9%(162명)가 염색을 했다고 했다.

생활수준에 따른 염·탈색의 여부는 조사대상자 중 생활수준이 높은 87.5%(14명), 중간 82.3%(172명), 낮은 82.2%(60명)가 염·탈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에 따라서 55~30만원 83.0%(44명), 30~25만원 79.2%(38명), 25~20만원 80.8%(63명), 20~15만원 93.3%(28명), 15~3만원 82.0%(73명)가 모두 염·탈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 출처에 따라서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는 조사대상자 881.8%(27명),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조사대상자 80.0%(148명), 부모님이 주신 용돈과 스스로 용돈을 마련해서 사용하는 조사대상자 88.8%(71명)가 염·탈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탈색의 유무와 개인변인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이 모두 염·탈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개인변인과 염·탈색의 유무

전체=299

개인변인		염·탈색의 유무					x ² 및 유의도
		했다		안했다		계 (빈도/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19세~20세	101	78.3	28	21.7	129	.045
	21세~25세	124	83.8	24	16.2	148	
	25세 이상	21	100.0	-	-	21	
주거 형태	(부모님과) 같이 산다	84	80.0	21	20.0	105	.242
	떨어져서 산다	162	83.9	31	16.1	193	
생활 수준	上	14	87.5	2	12.5	16	.866
	中	172	82.3	37	17.7	209	
	下	60	82.2	13	17.8	73	
용돈	55~30만원	44	83.0	9	17.0	53	.558
	30~25만원	38	79.2	10	20.8	48	
	25~20만원	63	80.8	15	19.2	78	
	20~15만원	28	93.3	2	6.7	30	
	15~3만원	73	82.0	16	18.0	89	
용돈 출처	스스로 마련	27	81.8	6	18.2	33	.225
	부모님	148	80.0	37	20.0	185	
	스스로 마련/ 부모님	71	88.8	9	11.3	80	

(4) 염·탈색의 선호색

개인적 변인 중 연령과의 유의도가 있었으며 다른 변인과는 유의도가 없었다. 염색 색상은 옐로우, 골드 색상, 브라운, 레드, 오렌지, 와인류, 화이트, 실키, 블루, 블랙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적 변인과 염·탈색의 선호색상은 〈표 7〉와 같다.

연령은 19~21세 까지 38.6%(40명), 22~25세 까지 35.2%(45명), 25세 이상인 100.0%(21명)가 염·탈색의 선호 색상 중 브라운색상으로 염색을 했다고 대답했다. (p.<.01)

〈표 7〉 개인적 변인과 염·탈색의 선호색상

전체=299

종속변인 개인변인		염색·탈색의 선호 색상									χ ² 및 유의도
		옐로우·골드		브라운류		레드·오렌지·와인류		화이트·실키·블루·블랙		계 (빈도/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19세-20세	34	33.0	40	38.8	20	19.4	9	8.7	103	.002**
	21세-25세	41	32.0	45	35.2	15	11.7	27	21.1	128	
	25세 이상	-	-	8	38.1	8	38.1	5	23.8	21	
주거 형태	(부모님과 같이산다	23	26.4	31	35.6	16	18.4	17	19.5	87	.668
	떨어져서 산다	52	31.5	62	37.6	27	16.4	24	14.5	165	
생활 수준	上	5	35.7	5	35.7	1	7.1	3	21.4	14	.940
	中	54	30.3	66	37.1	30	16.9	28	15.7	178	
	下	16	26.7	22	36.7	12	20.0	10	16.7	60	
용돈	55~30만원	7	15.9	21	47.7	9	20.5	7	15.9	44	.631
	30~25만원	13	32.5	15	37.5	7	17.5	5	12.5	40	
	25~20만원	21	32.8	23	35.9	9	14.1	11	17.2	64	
	20~15만원	11	39.3	9	32.1	6	21.4	2	7.1	28	
	15~3만원	23	30.3	25	32.9	12	15.8	16	21.1	76	
용돈 출처	스스로 마련	4	14.3	12	42.9	8	28.6	4	14.3	28	.379
	부모님	46	30.5	56	36.4	26	17.2	24	15.9	151	
	스스로 마련/ 부모님	25	34.2	26	35.6	9	12.3	13	17.8	73	

*p<.05 **p<.01 ***p<.001

즉, 연령대 모두가 브라운류의 색상으로 염·탈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모발색의 갈색 종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조사대상자 중 35.6%(31명),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은 대상자 37.6%(62명)가 브라운 색상으로 염·탈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별로 살펴보면 55~30만원 47.7%(21명), 용돈이 30만원~25만원 37.5%(15명), 25~20만원 35.9%(23명), 15~3만원 32.9%(25명)가 브라운색상으로 염·탈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이 20~15만원 32.9%(25명)가 옐로우나 골드로 염·탈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 출처는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는 조사대상자 42.9%(12명),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조사대상자 36.4%(55명), 부모님이 주신 용돈과 스스로 용돈을 마련해서

사용하는 조사대상자 35.6%(26명)가 브라운색상으로 염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새롭게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 형태

개인적 변인 모두 개성적인 헤어스타일을 할 것이라고 대답하여서 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

개인적 변인과 변화하고 싶은 헤어스타일 형태는 <표 8>와 같다.

표 8) 개인적 변인과 새롭게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 형태

전체=299

개인변인		새롭게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 형태						계 (빈도/백분율)	χ ² 및 유의도
		평범한헤어스타일		유행하는헤어스타일		개성적인헤어스타일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19세-20세	17	13.4	34	26.8	76	59.8	127	.629
	21세-25세	22	15.7	43	30.7	75	53.6		
	25세 이상	1	5.0	7	35.0	12	60.0		
주거 형태	(부모님과) 같이산다	18	17.8	30	29.7	53	52.5	101	.331
	떨어져서 산다	22	11.8	54	29.0	110	59.1		
용돈	55~30만원	4	7.7	9	17.3	39	75.0	52	.205
	30~25만원	9	19.6	15	32.6	22	47.8		
	25~20만원	12	16.2	25	33.8	37	50.0		
	20~15만원	4	14.3	7	25.0	17	60.7		
	15~3만원	11	12.6	28	32.2	48	55.2		
용돈 출처	스스로 마련	4	12.9	10	32.3	17	54.8	31	.994
	부모님	25	14.0	51	28.5	103	57.5		
	스스로 마련/ 부모님	11	14.3	23	29.9	43	55.8		

-*p<.05 **p<.01 ***p<.001

연령에 따라 19~21세까지 59.8%(76명), 22~25세 53.6%(75명), 25세 이상 60.0%(12명)가 나만의 개성적인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

주거형태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조사대상자 중 52.5%(53명),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은 대상자 59.1%(110명)가 나만의 개성적인 스타일로 바꾸고 싶다고 대답했다.

용돈이 55~30만원인 조사대상자 75.0%(39명), 30~25만원 47.8%(22명), 25~20만원 50.0%(37명), 20~15만원 60.7%(17명), 15~3만원 55.2%(48명)가 모두

나만의 개성적인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용돈 출처는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는 조사대상자 54.8%(17명),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조사대상자 57.5%(103명), 부모님이 주신 용돈과 스스로 용돈을 마련해서 사용하는 조사대상자 55.8%(43명) 모두가 나만의 개성적인 헤어스타일을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2) 성격특성과 헤어스타일의 형태

(1) 헤어스타일의 길이

조사대상자의 성격특성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길이를 살펴보면 충동성, 모험성, 감정이입의 성격특성이 헤어스타일의 길이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격특성과 헤어스타일 형태는 <표 9>와 같다.

성격 특성 중 외향성-내향성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37.2%(61명)이 어깨선 길이, 신경증적 경향성의 성격특성의 조사대상자 41.3%(45명)이 어깨선 이상의 머리길이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충동성의 성격특성을 가진 조사대상자 중 38.6%(17명), 모험성의 성격 41.7%(35명)가 어깨길이의 머리길이를 하고 있었으며 감정이입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 43.5%(57명)가 어깨선 이상의 길이의 머리형태를 하고 있었다. (p<.01)

즉, 성격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길이는 어깨선 또는 그 이상의 긴머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성격특성변인과 헤어스타일의 길이

전체=273/259

개인변인	종속변인	헤어스타일의 길이								계 (빈도/백분율)	x ² 및 유의도
		짧은커트형		단발형		어깨길이		그이상의 긴머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 격 특 성	외향성-내향성 (Extroversion- Introversion)	21	12.8	27	16.5	61	37.2	55	35.5	164	.395
	신경증적경향성 (Neuroticism)	8	7.3	17	15.6	39	35.8	45	41.3	109 N=273	
	충동성 (Impulsiveness)	9	20.5	6	13.6	17	38.6	12	27.3	44	.007**
	모험성 (Venturesomeness)	11	13.1	18	21.4	35	41.7	20	23.8	84	
	감정이입 (Empathy)	7	5.3	16	12.2	51	38.9	57	43.5	131 N=259	

-*성격특성의 경우 오기재자 때문에 합계가 다름
 -*p<.05 **p<.01 ***p<.001

2) 퍼머넌트의 유무

성격 특성 변인과 외향성-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충동성, 모험성, 감정이입의 특성과 퍼머넌트 웨이브 여부에는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격특성과 퍼머넌트 유무는 <표 10>과 같다

성격 특성 중 외향성-내향성외 의 성격특성68.3%(112명), 신경증적 경향성의 성격 특성 64.2%(70명), 충동성의 성격특성 75.0%(33명), 모험성의 성격특성 69.3%(58명), 감정이입의 성격특성 60.3%(79명)가 퍼머넌트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여 성격 특성과 퍼머넌트 웨이브 여부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 성격특성변인과 퍼머넌트의 유무

전체=273/259

독립변인	종속변인	퍼머넌트 의 유무				계 (빈도/백분율)	x ² 및 유의도
		했다		안했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 격 특 성	외향성-내향성 (Extroversion-Introversion)	52	31.7	112	68.3	164	.284
	신경증적경향성 (Neuroticism)	39	35.8	70	64.2	109	
	충동성 (Impulsiveness)	11	25.0	33	75.0	44	.150
	모험성 (Venturesomeness)	26	31.0	58	69.0	84	
	감정이입 (Empathy)	52	39.7	79	60.3	131	

-*p<.05 **p<.01 ***p<.001

(3) 염·탈색의 유무

성격특성변인 외향성-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충동성, 모험성, 감정이입의 특성과 염·탈색의 여부에는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격특성과 염·탈색의 유무는 <표 11>과 같다

성격 특성 중 외향성-내향성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84.7%(138명), 신경증적 경향성의 성격을 띤 조사대상자 중 78.9%(86명), 충동성의 성격특성을 가진 조사대상자

중 72.7%(32명), 모험성의 성격을 띤 조사대상자 중 86.9%(73명), 감정이입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 81.5%(106명)가 염·탈색을 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성격특성과 염·탈색의 유무는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11〉 성격특성과 염·탈색의 유무

전체=273/259

종속변인 독립변인	염색·탈색의 유무					χ ² 및 유의도	
	했다		안했다		계 (빈도/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 격 특 성	외향성-내향성 (Extroversion- Introversion)	138	84.7	25	15.3	224(100%)	.145
	신경증적경향성 (Neuroticism)	86	78.9	23	21.1	48(100%)	
	충동성 (Impulsiveness)	32	72.7	12	27.3	44(100%)	.142
	모험성 (Venturesomeness)	73	86.9	11	13.1	84(100%)	
	감정이입 (Empathy)	106	81.5	24	18.5	130(100%)	

-*p<.05 **p<.01 ***p<.001

(4) 염·탈색의 선호색

성격특성변인 외향성-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충동성, 모험성, 감정이입의 특성과 염·탈색의 선호색상에는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격특성변인과 염·탈색의 선호색상은 〈표 12〉과 같다,

성격특성인 외향성-내향성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32.4%(46명), 신경증적 경향성의 성격 45.5%(40명), 충동성 35.3%(12명), 모험성 44.6%(33명), 감정이입 37.4%(40명)가 브라운류의 색상으로 염·탈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격특성과 염·탈색의 선호색상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12〉 성격특성변인과 염·탈색의 선호색상

전체=273/259

개인변인	종속변인	염·탈색의 선호색상								x ² 및 유의도	
		멜로우·골드		갈색류		레드·오렌지·와인류		화이트·실카·블루·블랙			계 (빈도/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 격 특 성	외향성-내향성 (Extroversion- Introversion)	44	31.0	46	32.4	27	19.0	25	17.6	142(100)	.186
	신경증적경향성 (Neuroticism)	26	29.5	40	45.5	11	12.5	11	12.5	88(100)	
	충동성 (Impulsiveness)	11	32.4	12	35.3	3	8.8	8	23.5	34(100)	.319
	모험성 (Venturesomeness)	20	27.0	33	44.6	7	9.5	14	18.9	74(100)	
	감정이입 (Empathy)	32	29.9	40	37.4	21	19.6	14	38.9	107(100)	

-*p<.05 **p<.01 ***p<.001

(5) 새롭게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 형태

성격특성변인 외향성-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에서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 형태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충동성, 모험성, 감정이입의 성격특성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성격특성변인과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의 형태는 〈표 13〉와 같다.

성격특성인 외향성-내향성 외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65.6%(103명)가 개성적인 헤어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데, 신경증적 경향성 48.7%(37명)는 유행하는 헤어스타일로 바꾸려 한다고 대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즉, 다른 성격특성들 보다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의 성격특성을 가진 조사대상자 중 54.8%(23명), 모험성의 성격을 띤 조사대상자 중 62.8%(49명), 감정이입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 50.8%(65명)가 자신만의 개성적인 헤어스타일로 바꾸려고 한다고 대답하여 이 세 성격특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3〉 성격특성변인과 새롭게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의 형태

전체=273/259

종속변인 개인변인		새롭게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의 형태						계 (빈도/백분율)	χ ² 및 유의도
		평범한헤어스타일		유행하는헤어스타일		개성적인헤어스타일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 격 특 성	외향성-내향성 (Extroversion- Introversion)	15	9.6	39	24.8	103	65.6	157	.002**
	신경증적경향성 (Neuroticism)	21	20.0	37	35.2	47	44.8	105	
	충동성 (Impulsiveness)	5	11.9	14	33.3	23	54.8	42	.268
	모험성 (Venturesomeness)	8	10.3	21	26.9	49	62.8	78	
	감정이입 (Empathy)	23	18.0	40	31.3	65	50.8	128	

-*p<.05 **p<.01 ***p<.001

V. 결론

본 연구는 영동지역에 거주하는 여대생을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성격 및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에 따른 헤어스타일 형태 및 변화에 관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변인에 관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연령」은 19~33세로 다양했으며 19~21세까지 43.5%, 22~25세 49.5%, 25세 이상 6.8%으로 분류하였다. 「주거형태」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조사대상자 35.5%이며,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은 조사대상자 64.5%였다. 「생활수준」은 상인 조사대상자 5.7%, 중인 조사대상자 69.9%, 하인 조사대상자 22.4%였다. 「한달 사용하는 용돈」은 3만원에서 55만원까지였으며 한달 용돈이 55만원~30만원 17.6%(53명)이었고, 30~25만원 16.1%(48명)이며, 25~20만원 26.1%(78명), 20~15만원 10.1%(30명), 15~3만원 30.1%(90명)이었다.

「용돈의 출처」는 용돈을 스스로 마련하는 조사대상자는 11%, 부모님에게 타서 쓰는 조사대상자는 61.6%, 부모님에게서와 스스로 마련하는 조사대상자는 27.1%로 대다수의 학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은 외-내향적 54.8%, 신경증적경향 36.5%, 충동성의 14.7%, 모험성의

성격 28.1%, 감정이입 43.8%로 나타났다. 성격 특성 중 정신병적 경향과 허위성의 성격특성을 가진 대상자는 빈도가 낮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개인적 변인 · 성격특성변인과 헤어스타일의 변인의 차이점

개인적 변인과 헤어스타일의 길이는 연령에서 19~25세까지의 연령대의 집단은 어깨선이나 그 이상의 머리길이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 이상이 짧은 커트형의 머리형태를 하고 있었다.

성격특성변인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의 길이는 어깨선이나 그 이상의 머리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어깨선이나 그 이상의 머리 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변인과 퍼머넌트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령은 퍼머넌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5세 이상의 연령이 퍼머넌트를 했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자연모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변인에 따라서는 퍼머넌트를 하지 않고 자연모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변인 및 성격특성변인과 염 · 탈색 유무에 대해서 개인적 변인과 성격특성변인 모두 염 · 탈색을 했다 라고 대답하여 염 · 탈색을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 · 탈색을 했다면 어떤 색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대다수가 브라운류로 염색을 하여 오렌지, 그레이, 화이트, 블루 등의 색상보다는 모발색과 같은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염 · 탈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새롭게 바꾼다면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변인이 나만의 개성적인 스타일로 바꾼다고 하여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유행보다는 개성적인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여대생은 어깨선 길이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짧은형의 머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퍼머넌트는 하지 않고 자연 모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염 · 탈색을 선호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염색이나 탈색을 한 상태였으며, 염색이나 탈색을 할 때는 오렌지, 그레이, 블루, 블랙, 와인, 화이트나 실키등 연예인들이 TV나 잡지 등에서 보여주는 유행색상 보다는 브라운이나 갈색류등의 모발색상과 비슷한 자연스러운 색상을 주로 염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색된 색상 옐로우와 골드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염색과 탈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헤어 시장이 다양한 색상의 컬러를 주력 상품으로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자연스러운 색상의 컬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새롭게 바꾼다면 대다수가 자신만의 개성적인 헤어스타일로 바꾼다고 대답하여 유행하는 스타일의 획일화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더 강조한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1)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92, pp.254~255
- 2) 고려대학교부설행동과학연구소, 심리척도핸드북, 학지사, 2000, pp.47~60
- 3) 김민자, 1960년대 팝아트의 사조와 패션, 한국의류학회지, 10권 1호, 1986 pp.69~84
- 4) 김복숙,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p.1~7
- 5) 김양휴, 헤어스타일 선호도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96, pp.14~16, pp54~56
- 6) 김희숙, 20세기 서구여성 헤어스타일 변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3, pp.15~18
- 7) 나광주,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p.2~3
- 8) 데이비드본드, 20세기 패션, 정현숙(역), 서울 :경춘사, 1992, pp.34~50
- 9) 도주연,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 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pp.12~16
- 10) 미용교재 연구회편, 종합미용이론, 서울: 유신문화사, 1998, pp.16~30,
- 11) 미용기초기술 II, 보성사, 서울, 1998, pp.107~108
- 12) 전선정외 3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1, pp.147~218, pp.302~365
- 13) 조규화, 복식미학, 경춘사, 서울, 1995, p.642
- 14) 조미영, 현대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1
- 15) 안현경, 20세기 서구여성의 머리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pp.43~73
- 16) 이수원외, 심리학, 정민사, 1992, p.236
- 17) 이영미,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pp.12~17
- 18)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서울, 1994, p.131
- 19) 이현수,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서울, 학지사, 2000, pp.11~12
- 20) 이현수, 성격특징의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논문 27집, 1983, pp.112~142

- 1) Asch, S. E, Fi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6, 41(3), pp.258~290 (재인용)
- 2) _____, The Dictionary of Costume, London : B. T. Batsford Ltd, 1979 (재인용)
- 3) Eysenck, H. J, Dimension of Person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47 (재인용)
- 4) Eysenck, H. J, The scientific Study of Person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2 (재인용)
- 5) Eysenck, H. J. & Eysenck S. B. G,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Scales(EPA adult), London: Hodder & Stoughton, 1991
- 6) Mansfield, A. & P. Cunnington, Handbook of English Cstume in the Twintieth Century 1900~1950. Boston: Plays Ind., 1973
- 7) Nunn. L, Fashion in Costume 1200~1980. London: The Hetbert Press
- 8) Powitt, A. T.(1977). Hair Structure & Chemistry Simplified, New York: Milady, 1977
- 9) Read, H., The Art of Sculpture. Washington: Princeton Univ. Press. 1954

Abstract

A Study on hair style in relationship to personal background and personality

Hee-Jung, Leem* · Hee-Hyun, Lee**

* Youngdong College
lecturer
**Kwandong Uni. Dep.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air style and personal character. This is elucidated by using the standard model of their preferred hair style to their individual to their personality. The study is primarily centered around college woman, who reside in Young dong area.

The research suggested that In the age group 19-25 subjects preferred their hair to be shoulder length or longer. This is in contrast to the older age group preferring a shorter hair style. Certainly most subjects under the age of 25 preferred their natural hair texture as opposed to permed hair fashioned by older subject. Difference in personality traits was not a factor here.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personal background and whether or not subjects dyed or decolored their hair. Subjects responded "yes" which means that they are easily affected by the two factors. The response to the other question of which color they chose, if they dyed and decolored, was that the most of the cases preferred brown color because brown is a natural looking hair color. Their responses from the question " what kind of style they want, if they can change their style differently", they preferred a fashionable hair style.

In most cases, individual responded that they change their hair style once in every two or three months. Of all the personality traits, 48.1% were adventurous, changing their hair style more than once in every 6 months.

The main reason they change their hair style is that they are bored with their old style. In the under 25 age group, the cost of changing their hair style is usually paid for by the subjects parents, however a few responded that they paid for themselves.

Over the age of 25 years 80% usually paid for themselves. Additionally students who supported themselves financially paid for hair restyling themselves.

When changing a hair style most subjects consider that new hair style should go with their existing image. "What kind of image they want to show others?" almost all of them responded that they want to look sophisticated and fashionable, In the age group 25 and over who belong to the upper class want their hair to look healthy and a full of body. They also responded about their changing their hair style to show a different appearance positively.